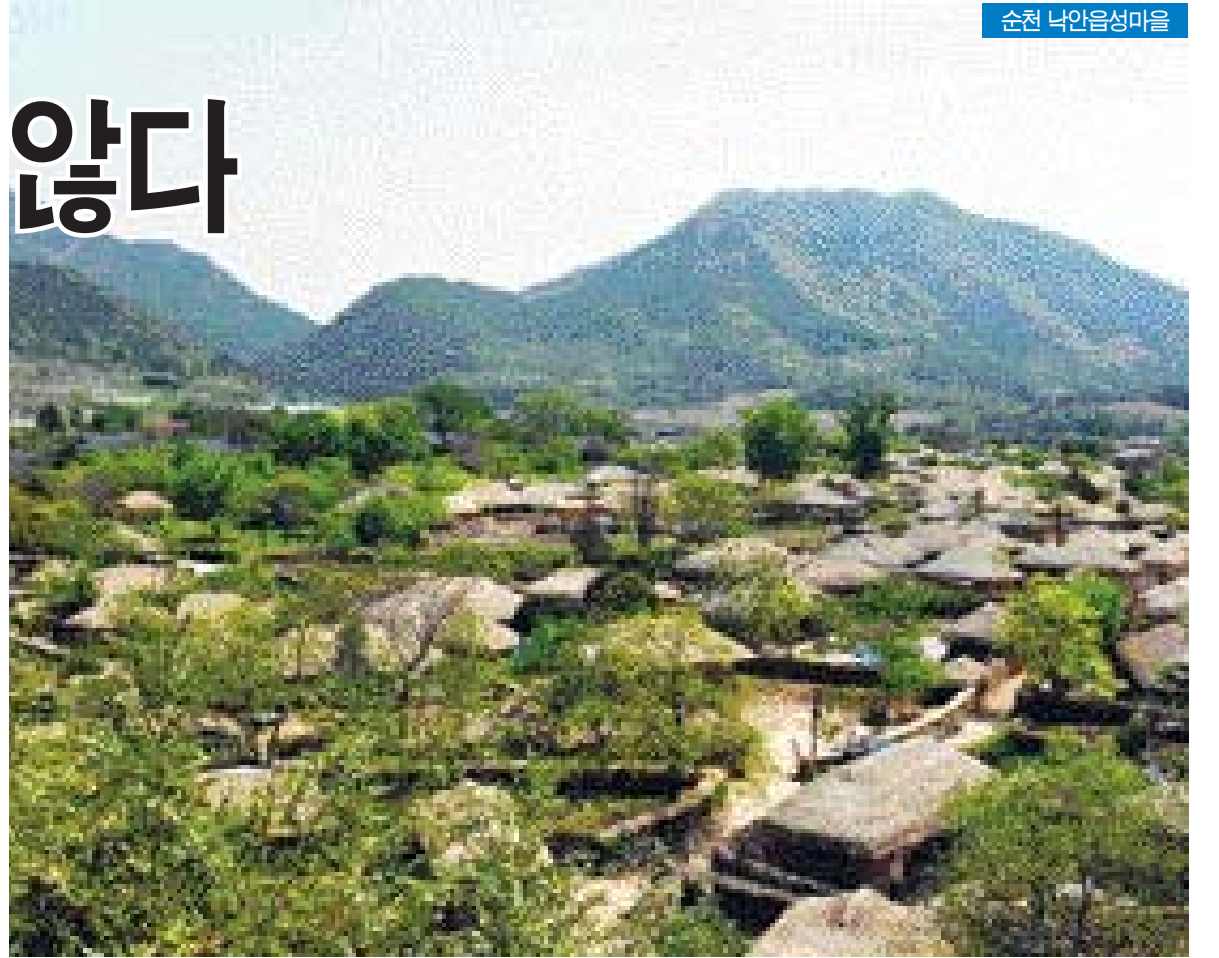


전남 전통마을, 하회마을 못지않다

순천 낙안읍성마을



전남지역 전통마을



하회·양동마을 유네스코 등재로 주목 전통가옥·민속문화 유산 오롯이 보존 순천 낙안읍성 작년 8월 잠정목록 신청

지난 1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새로 등재되면서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전남지역 전통마을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남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은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과 영암 군서면 도림마을을 비롯해 ▲나주 다도면 도래마을 ▲영광 묘량면 효동마을 ▲장흥 관산면 방촌 전통마을 ▲보성 득량면 강골마을 ▲함평 해보면 모평마을 등이 있다.

◇수백년 역사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사적 제302호)은 길이 1410m의 성벽 내외 22만3108㎡(6만7490평) 부지에 주민 300여명이 거주하며 전통을 잇고 있다.

조선시대 동헌(東軒)과 객사·내아(內衙) 등 관아(官衙) 4동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9개 가옥, 300~600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老巨樹) 등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성벽이나 성내를 걸으며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시간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삼한시대부터 220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영암 구림마을은 유형 문화자원인 회사정과 국암사·담죽제 등 12개의 누정과 전통가옥·돌담·고목 나무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많은 역사적 설화와 도선국사·왕인박사 등 인물을 배출한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나주 도래마을은 지난 2006년 10월 (재)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옛집한 채를 사들여 시민문화유산으로 보존해 화제가 됐다. 조선시대 전통 한옥과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영화 '백치 아다다' 촬영지인 영광 효동마을은 초가집과 돌담길, 고인돌이 보존 계승되는 등 한국농촌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성 강골마을은 열화정과 이용옥

가옥 같은 다수의 전통가옥·해평 석장승 등 지정문화재가 있다. TV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알려졌다.

장흥 방촌 전통문화마을은 장흥 위씨의 집성촌으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시범마을 가운데 최초로 '마을 문화사'를 간행했다. 선사시대 이래 다양한 문화유적과 전통가옥·민속문화가 오롯이 살아있다.

함평 모평마을은 모평현이 자리했던 곳으로 함평군의 근간이 되는 마을이다. 함평현과 모평현을 함께 함평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옛 동헌 터와 객사 터·내아터 등에 후손들이 기거하고 있다.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는 전통마을=이들 전통마을은 온전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데서 한발 나아가 도시인들에게 '시간여행'과 '느림의

미학'을 선사하고 있다.

돌담길이 아름다운 담양 삼지내 마을은 지난 2007년 12월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인근에서 된장과 쌀엿·한과 등 '슬로푸드'를 접할 수 있다.

함평 모평마을과 보성 강골마을·영암 도림마을 등 대부분 전통마을에서는 수백 년 된 고택(古宅)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문화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민박과 전통놀이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오는 13~14일 1박2일간 도래마을 옛집에서 초등 4~6년을 대상으로 '바람이 불면 풍(風)을 익히고, 꽃을 보고는 화(花)를 그린다'라는 주제의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이명숙 함평 모평마을 사무장은 "어른들은 옛것을 그리워하고, 젊은 층은 자녀들에게 선조의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마을을 찾는다"며 "콘도나 리조트 대신 약간의 불편하지만 한옥에서 묵으며 대부분 만족해 하며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순천시는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낙안읍성을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핑퐁쇼

이명숙 함평 모평마을 사무장은 "어른들은 옛것을 그리워하고, 젊은 층은 자녀들에게 선조의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마을을 찾는다"며 "콘도나 리조트 대신 약간의 불편하지만 한옥에서 묵으며 대부분 만족해 하며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순천시는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낙안읍성을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등산 주상절리대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광주시 TF팀 구성 연내 문화재청 잠정목록 접수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광주시가 무등산 주상절리대(柱狀節理帶)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역점시책의 하나로 무등산 서석대(해발 1100m)와 입석대(1017m)의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는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기에 앞서 올해 안에 주상절리대를 문화재청 자연유산

잠정목록 대상으로 접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로 TF팀을 구성, 로드 맵을 작성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발 1000m 이상에 주상절리대가 형성된 곳은 극히 드물어 서석대와 입석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하다"며 "유산 문화재청 자연유산 잠정목록 대상에 선정돼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말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무등산 서석대와 입석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발생한 화산 활동의 산물로 용암이 냉각·수축하면

서 굳어져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의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 기둥과 병풍모양을 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다.

입석대는 5~8각, 둘레 6~7m, 높이 10여m의 독립된 돌기둥 수십 개가 수직으로 솟아 있으며, 서석대는 돌 병풍 모양으로 동서로 길게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불국사, 해안사 장경관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조선 왕릉,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등 10곳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목포상의 지지 성명

목포상공회의소가 2일 '영산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목포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구둑 축조와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으로 오염된 영산강은 매년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영산강 수질은 이미 생활용수로 사용이 어렵게 된지 오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달리 수질개선과 홍수 방위에 중점을 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현실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반대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지역 상공인들은 영산

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목포상의는 또 "영산강 살리기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산강을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소신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